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7 상반기 제14호

발행 한국관상지원단 편집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8
MODS빌딩 512호 (문정동, 모즈아울렛) Tel 02-421-1968 Fax 02-409-1968
E-mail koreacontout@dreamwiz.com www.centeringprayer.or.kr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33권 1호(2016년 12월), 토머스 키팅 / 이청준 역

우리는 관상 기도를 수련하고 침묵의 소리를 경청할 때, 지나가는 생각들을 무시하라고 배웠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온갖 자료를 받아들이는 머릿속 수용 기재를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 놓아버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개방한다. 이제 하느님께서 친밀의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를 신적 치유라 부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께서 가장 훌륭한 정신과 의사이다. 우리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받아야 한다.

관상 기도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기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정신의 사고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 어떤 감각적 체험보다 더 실제적이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면, 그분께서는 자기 의식적이며 사색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초래한 상처와 문화적으로 외부에서 가해진 상처들을 치료해주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름, 이력, 인격, 성격, 기질 혹은 에니어그램 유형보다 더 가까운 분이시다. 매순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일생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용하시어 우리의 나약함을 겸손과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시키신다.

관상기도에서 침묵이 깊어지면, 그 침묵은 신적 현존의 차원에 이른다. 이 현존은 우리 안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우리가 신적 사랑의 포용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것을 요청한다.

삶은 하느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동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무르는 과정이다. 일상의 마모와 손상은 우리의 변화의 차원을 시험한다. 우리가

외적 어려움과 무력감에 시달릴 때에도 기도 중에 누리는 정신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조건에 동의하라는 뜻이다. 지금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칠팔십억에 이르는 사람 개개인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이루려 하신다. 이 관계는 알려진 바도 없고 반복될 수도 없는 유일한 관계이다.

하느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는 평화를 얻는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다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걱정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께,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가장 잘 동화될 것이다.

사랑 안에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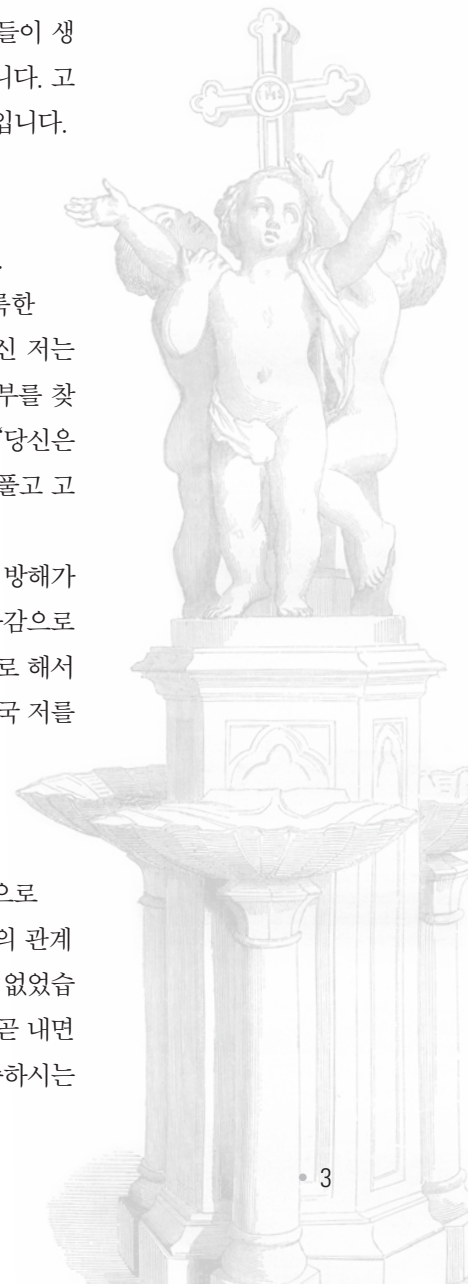
33권 1호(2016년 12월), 제일 피츠페트릭 호플러

향심기도는 초보자용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덧붙이면, 향심기도는 각 개인이 준비된 만큼, 그리고 필요로 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내 체험에 따르면, 향심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해나가는 동안 미묘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단어나 상징으로 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와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3년도에 향심기도에 입문했습니다. 그 전 7년 동안 비개념적 명상 수련을 계속하여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향심기도 수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거룩한 단어 사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비개념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머릿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존재를 사용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토머스 신부를 찾아가 제 수련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향심기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저 긴장을 풀고 고요히 있으십시오. 거룩한 단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그저 머무는 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향심기도에서 ‘제대로’하는 것이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감으로써 생각을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저의 문화적 조건은 그것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발휘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저를 생각mind/thoughts의 차원으로 데려갔고, 이는 본질적으로 저를 기도에서 빼내어 방법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관상 여정의 이 시점에서 저는 수련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상 여정의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일인데, 이전에 했던 수련만으로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향심기도 수련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곧 내면의 방의 어둠 속에 숨어계신 하느님,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시며 내주하시는 영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향심기도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수련을 습득하는 단계에서부터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단계를 거쳐, 오랫동안 훈련에 헌신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차 깊어집니다. 결국 우리를 신적 치유에 이르게 하는 더 깊은 변화의 단계에까지 나아가도록 준비시킵니다. 이 과정 안에는 새로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보 전진했다가 일보 후퇴한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향심기도는 관상기도를 준비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 처분에 내맡기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리 말해서, 어떤 시점에 이르면, 그 방법은 사라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언제, 왜 일어나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내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것은 ‘님’에게서 우리 주의를 돌려 자기 몰두와 자기 성찰이라는 분석적 사고로 후퇴시킵니다. 모든 관계에서처럼, 뭔가를 알아내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저 너와 함께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모두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종종 하느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저의 은퇴 메시지를 소식지 6월호에 발표한 이후, 그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문자와 편지와 이메일과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들을 받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애써 기억해 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눈 우정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 직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관상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며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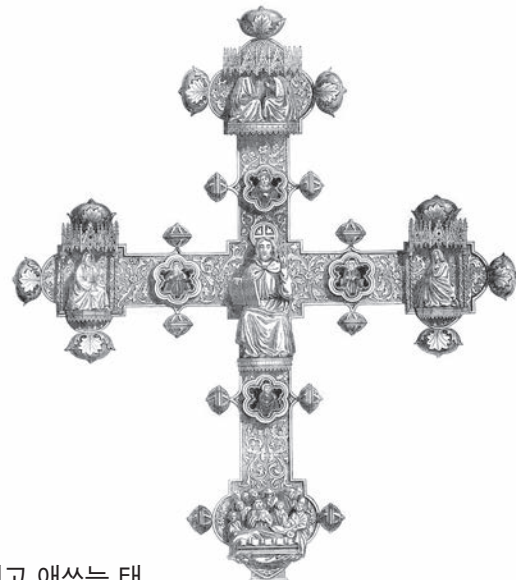
“긴장을 풀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둡니다.”

33권 1호(2016년 12월), 칼 아리코 신부

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자 그가 한 대답이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80대 후반인 지금까지 충실히 기도생활을 해왔다. 그가 약 35년 전 본당에서 시작했던 향심기도 그룹은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그는 그 동안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느님 은총의 기적의 현장, 즉 33주년을 맞이한 관상지원단에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게일 피츠페트릭 호플러가 즐겨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음으로써 다 가집니다.” “긴장을 풀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둡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 쏟아 부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 내가 삶의 모토로 삼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과정을 신뢰하라”, 곧 성령께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다 이루시게 내맡기라는 말씀이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지혜 9,10~11)



완전한 신뢰를 막는 큰 걸림돌은 지나친 개념화, 즉 언제나 이해하려고 애쓰는 태도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다른 가능성, 즉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 내가 인도하려고 하면 인도되지 못한다.

사막 교부들의 지혜는 큰 가르침이 된다. “생각은 욕망으로 이끌고, 욕망은 열정으로 이끌며, 열정은 실행으로 이끈다(에바그리우스).” 동감하는 바이다! 생각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활동의 씨앗이다. 우리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는 에너지 센터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안전/생존, 애정/존중, 힘/지배)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이 에너지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에 따라 그것들이 생명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억제시키는 것이 되기도 한다. 지배의 에너지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힘과 지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동기의 원천이 된다면 활동의 열망과 열정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집착이 없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열망과 열정과 실행이 겉보기에는 똑같겠지만 다른 느낌과 다른 영향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이사 55,8~9)

우리 손에서 일단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그 씨앗이 제 나름의 삶을 갖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씨앗이 뿌려진 곳에 거름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 양심성찰이 성령 안에서 깨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나의 동기는 어땠는가? 나의 하루를 지배한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그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오늘 제 안에 참된 힘과 지배, 참된 애정과 존중, 참된 안전과 생존을 불러 일으켜주소시오.’ 여기서 ‘참된’이란 우리의 참 자아와 우리 안의 신적 현존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자애와 용서로 채워준다는 뜻이다.

나는 조각가에게 목각 하나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이 영적 여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페블 비치의 유명한 소나무 ‘론 파인’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태평양을 내려다보며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모습도 변한다. 나에게도 그러하기를 기도한다.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여 거룩한 숨결이신 성령께서 나를 조각하시도록 내맡기게 하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심겨진 곳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게 하소서.(1코린 2,16)

전례주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라는 초대이다. 대림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초대하고, 사순절은 회개하라고(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꾸라고) 초대하며, 나머지 연중 시기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며 “긴장을 풀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하라”고 권고한다.



기쁨의 이유

연 제식 레오 신부(청주교구, 원로 사목자)

눈은 마음의 창이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의 꼴 즉 마음의 생김새라는 얼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안다.

다른 말로 인상을 보면 심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한다.
인상을 좋게 하는 것은 얼굴의 미소 즉 웃는 얼굴이다.

얼굴이 웃으려면 마음이 웃어야 한다.
마음이 웃으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인 것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말씀 Good News이다.
복음 말씀대로 살면 기뻐야 한다.
기쁨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복음대로 살면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고뇌도 많이 하셨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님 삶의 모든 바탕은 기쁨이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이 바로 기쁨의 이유이다.

예수님은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늘 부활을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사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삶의 열매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희망이요, 사랑이다.

우리는 믿어야 한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우리는 희망한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의 원천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해야 한다. 기뻐지려면 사랑해야 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한다.

인상이 좋아지려면, 인상이 좋으려면, 심상이 좋아야 한다.

그러므로 심상이 좋으면 인상이 좋고, 인상이 좋으면 인생이 좋다.

그러나 심상이 안 좋으면 인상이 안 좋고, 인상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이 안 좋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상이 좋아야 한다.

인상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는 게 좋다. 할 수 없이 그런 사람과 상종해야 한다면 내 인상 좋은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만나야 한다.

침팬지를 사랑하고 연구한 제인구달은 침팬지를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과 상종할 때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들이 내 말을 듣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뼈 속에 새겼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방법,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부처님도 보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안시, 언시, 신시, 물시라 하셨다.
안시는 웃는 얼굴로 보시하는 것.
그다음 언시는 좋은 말로 보시하는 것.
세 번째 신시는 몸으로 보시하는 것.
네 번째 물시는 물질로, 돈으로 보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안시, 좋은 얼굴로 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행위이다.

기쁜 얼굴이 첫 번째 사랑 실천이다. “짱그린 성인보다 웃는 범인이 낫다”는 말도 있다. 사실 짱그린 성인이란 없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 들여라’는 시편 말씀이 바로 올바른 삶의 지침이다. 그 좋으신 하느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을 100% 믿고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다.

사랑의 주님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이 바로 내 기쁨의 이유이다.

발에 묻힌 보물

평화계곡 피정의 집 이 루시아 수녀

“원장 수녀님임~~~~”

교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가슴이 덜컥한다. 또 무슨 일로 면담을 하자는 걸까? 특별한 사명감으로 함께 하는 ‘장애유아전문 어린이집’에서도 근로법을 들고 찾아오는 교사들 앞에서 나는 늘 쪼그라든 갑이었다. 학부모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쏟아 부은 사랑과 열정과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매정하게 이원하는 학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슬픈 원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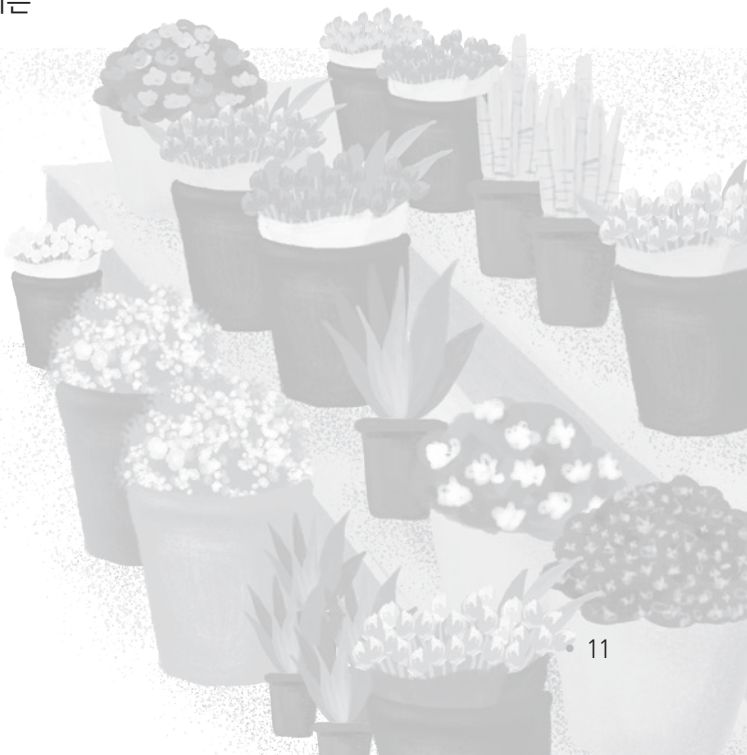
누가 삶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수도자로서, 특수교사로서 장애아를 사랑했던 마음과 이상은 점점 깨어지고 시설운영이라는 현실의 압박함 속에서 나의 마음은 시나브로 부수어져 가고, 빵의 기적이 급했던 나는 하느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내 몰고 살았었다. 더욱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의 무의식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거짓 자아의 쓰레기 덩어리가 거친 에너지가 되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음을 느낀 것이었다. 머리는 점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가슴은 텅 비어 가는 듯했다. 대답 없는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그땐 나의 유일한 기도였다.

하루 24시간 전부를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던 나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한 선배 수녀님과과의 만남은 목마름에 지친 내 영혼이 하느님이 계시는 물가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하느님은 그 선배 수녀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 식어가는 당신에 대한 열정과 그리움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

분명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였다. 향심기도! - 전공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던 내가 토머스 키팅 신부님의 저서를 모두 찾아 읽었으며 수련 때 읽었던 교회 신비가들의 저서를 읽으며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기 시작했다. 장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잠시 뒤로 물리고 고요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앉아 있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의 덜어냄은 나를 새롭게 조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거짓 자아의 정서 행복 프로그램의 지배 속에서 사뭇 흔들렸던 나를 하느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시 찾게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생활 안에서 늘어나는 영적 주의력, 빗장이 풀리듯 허물어지는 지독한 방어기제들! 그것은 분명 하늘에서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아~~ 하루하루가 나에게서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제 막 연애를 하는 연인처럼 설레임의 나날이었다. 신기한 것은 마치 나 자신인양 동일시할 만큼 소중했던 그러나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장애 어린이집이 나의 노력에 관계없이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 닥쳐도 소소히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 하느님이 그리워서 눈물이 빙그르르~~

출근하여 하루를 열면 바쁜 일정의 업무가 나를 쫓아 다닌다. 이제 겨우 하느님을 맞이한 나이기에 마음 가득히 하느님의 현존 활동에 동의하면서 하느님을 기다리는 빈 물동이가 되고자 성당으로 서둘러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정녕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기쁨의 잔치이다.



* 광주, 순천, 여수 지역 등... 향심기도 회원들의 체험담

1. 박찬성 토마스아퀴나스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기도다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평화방송을 통하여 향심기도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던 중 향심기도는 기도문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을 넘고, 느낌을 넘어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기도(지향)임을 깨달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침묵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 신부님께서 사제생활 10년이 지나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회의와 갈등이 심각하였으나, 침묵기도 수련 과정을 통해 변화됨을 느꼈다는 부분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향심기도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2015년 초 한국관상지원단 광주 향심기도회에 입문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향심기도 초년생으로서 아직 아기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제 향심기도 입문은 참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는 수련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려지며 수련이 끝난 후에는 편안함과 영적충만감으로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제 변형일치를 위한 이 길을 쉬지 않고 꾸준히 걷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 김현숙 데레사

지난 4월 향심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장화신은 아기가 퐁당퐁당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끌림에 강의를 듣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두 번 기도는 몸살을 앓는 것처럼 힘들었고 생각은 종이 올릴 때까지 다가올 때도 많았습니다. 계속 할 것인가? 갈증이 생겼고, '이 기도를 몰랐더라면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내뱉던 말을 잠재우고 내 마음은 호수의 물안개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술을 좋아하여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느님 현존의 신비를 믿으며 성령의 이끄심에 끌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는 양계장을 하는데 병아리를 한 달 키우면 출하를 합니다. 그런 날은 24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출하하는 다음 날 이 이청준 신부님의 강의를 있는 날이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지만 잠을 한 시간도 자지 못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곳으로 향했고 너무나도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날 나는 36시간을 하루로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련을 통하여 하느님 현존의 신비를 믿으며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향심기도회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3. 정광자 베로니카

향심기도는 나의 피난처, 안식처, 나의 보루-

2017년 1월이면 15년째 향심기도를 하게 됩니다. 침묵 안에 머무르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생활의 길잡이요, 내 정체성을 지탱해 주는 보루입니다. 향심기도로 인한 변화는 불같이 화를 잘 내는 내 성격이 따스하고 온화하게! 통제가 강했던 내 권력욕은 너그러운 유머로 변화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니 기쁜가?

이 기도를 알도록 인도해 주신 장 데레사 강사님께 감사 마음 전합니다.

4. 강금순 비비안나

찬미 예수님!

향심기도를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제가 체험한 것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 깊은 곳에 살아 계시며 활동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은총의 선물들을 제가 어떻게 당신께 갚아오리까 해놓고도 일상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온 정신을 다해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묵묵히 실천할 때 그분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통하는 그분께 거짓 자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향심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느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5. 광주지역 중흥 기도모임에서 향심기도 이후 회원들의 변화

- 하느님의 말씀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 마음의 평화가 많아졌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느긋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 좀 더 겸손하고 자비스러운 태도로 매사를 임합니다.
-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 나 자신이 순수하고 겸손할 때 답이 나옴을 알았습니다.
- 사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부정적 여론에 대해 인내로써 올바른 의견을 택하려 노력합니다.
- 모든 사물과 자연 속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 하느님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6. 김영재 알로이시오

향심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1일 2회 해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는데, 이제는 향심기도가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적 침묵 속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그분의 현존 안에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풍요롭고 놀라운 일들의 경험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동의를 함으로써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평화와 기쁨 속에 풍요로운 삶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분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7. 김미향 세실리아

가을! 기도하기에 더욱 더 좋은 계절입니다.

늘 그렇지만 동의하기에 좋은 순간은 지금! 여기! 이곳! 이 시간! 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향심기도는 우리들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맡겨드리며 깨어 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잘 제시해 주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 하십시오”(필립보2:5) 그 성심 안에 축축이 젖어 일치하는 그 비밀스런 만남을 선명하게 맛보고 있지들 않는가!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있다면 그 맛있는 데이트를 거절하지 말고 손을 놓지 말자고 서로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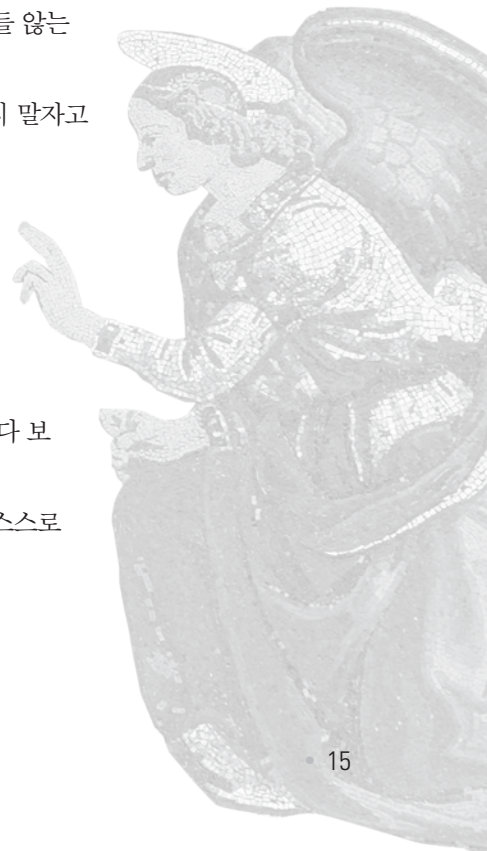
8. 이미숙 요안나

향심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구 따라 다니면서 30분씩 세타임……

나름대로 허리, 다리의 통증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다 보니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망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온전히 도착함’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님!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향심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9. 여수 김지영 엘리사벳

벌써 내 인생에 향심기도를 만난 지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내가 향심기도를 모르고 향심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텅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향심기도를 알게 되고 그 기도 안에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 구례 윤미옥 테오도라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학원 앞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도중 ‘이번에는 네가 포기해라, 네가 물러나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고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격려 덕분에 버티고 공부를 마치며 돌아오니 가족과 딸에게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 어학연수는 성령 따라 잘하고 돌아온 여행과 같았습니다.

11. 순천 장호정 마리아 막달레나

저는 딸과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를 함께 양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과정 중에서 각자의 양육 방식이 달라 갈등이 생겨나고 언쟁이 자주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함께 발칸반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딸이 저를 잘 맞춰 주며 지내다가 또다시 여행 중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몇 번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갈등 상황으로 인해 딸과의 여행이 고달프다는 생각을 가지며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 요인은 저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심기도로 인하여 저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게 되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2. 순천 이기원 켄마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향심기도에서 얹매는 생각을 떠나보내는 수련을 하다 보니,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 자비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순천 이성화 보나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용기라 생각하여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단점을 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몇 차례 경멸을 받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자비의 희년을 맞아 성사를 보고 잘잘못을 떠나 침묵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러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 부끄럽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반성을 하고 침묵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편안해져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침묵의 향심기도 수련을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4. 광양 김해현 까리따스

하느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되뇌던 중 우연히 향심기도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0분씩 하루 두 번의 수련은, 알고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상처까지도 치유되어 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향심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짓 자아가 줄어들어 하느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저를 봅니다.



2017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소개강의 및 피정 · 후속강의 및 심화피정 · 향심기도와 렉시오디비나 · 집중피정 ❖

피정	일시		장소	지도	연락처	신청자격
1일 소개강의 (3회)	4월 10일(월) 4월 14일(금) 4월 17일(월)	오후 2시~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외 3명	010-6288-0237	향심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1일 소개피정	3월 28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6월 13일(화)					
	8월 19일(토) 10월 31일(화)					
후속강의 (3회)	6월 12일(월) 6월 16일(금) 6월 19일(월)	오후 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외 3명	010-6288-0237	소개강의 및 소개 피정을 마친 분들
3박 4일 피정	3월 6(월) 15시 ~ 9일(목) 15시 (주제:향심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55) 221-1891~2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
2박 3일 피정	8월 8(화) 15시 ~ 10일(목) 15시 (주제: 성령의 열매와 은사)					
	12월 26(화) 15시 ~ 28(목) 15시 (주제: 중독과 하나님의 치료)					
	7월 13일(목) ~ 15일(토)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010-2002-1023	
2박 3일 소개 및 심화 피정	6월 2일(금) 오후 3시 ~ 4일(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사랑의 씨튼 수녀회	(041) 733-2992~4	소개강의 및 소개 피정, 6주 후속 강의를 마친 분들, 향심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11월 17일(금) 오후 3시 ~ 19일(일) 오후 3시					
4박 5일 심화피정	7월 31일(월) ~ 8월 4일(금) (주제 : 참자아 거짓자아)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김경순 수녀	(02)744-9825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
	12월 4일(금) ~ 8일(일) (주제 : 세가지 탄생)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주간 3박 4일 특별피정	4월 10일(월) ~ 13일(목)					
9박 10일 집중피정	3월 28일(화) 오후 4시 등록 ~ 4월 6일(목) 점심 식사 후 해산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광 지원단 교수진 주관	(02)421-1968	3박 4일 이상 심화피정을 마친 분들
	9월 12일(화) 오후 4시 등록 ~ 21일(목) 점심 식사 후 해산					

❖ 정서적 행복프로그램피정 ❖

피정	일시	장소	지도	연락처	신청자격
인간조건과 영적여정	5월 18일(목) 오후 3시 ~ 21일(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2)421-1968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과 누구나 참석
	11월 23일(목) 오후 3시 ~ 26일(일) 오후 3시				

❖ 2017년 향심기도 전국모임 ❖

피정	일시	장소	지도	연락처	신청자격
2박 3일 전국 모임	10월 20일(금) ~ 22일(일)	(마산) 가톨릭 교육관	한국관광지원단 이사회 주관	(02)421-1968	전 지역에서 향심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집 소개피정 · 심화피정 ❖

피정	일시				신청자격	피정비
1일 소개피정	1월 29일, 2월 12일, 4월 30일, 5월 28일, 6월 25일, 8월 27일, 9월 24일, 10월 15일, 11월 26일, 12월 10일 오전 10시 시작 ~ 오후 4시 마침				향심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20,000원
부모와 함께하는 첫 영성체반 향심기도 1일 소개피정	6월 4일(일) / 18일(일) / 24일(토) 오전 10시 시작 ~ 오후 4시 마침				학부모, 주일학교 교사, 첫 영성체반 어린이들	
1박 2일 피정	1월	7 ~ 8일		토요일 15시 시작 ~ 일요일 15시 마침	6주 후속강의를 마친 분들,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	60,000원
	2월	4 ~ 5일	11 ~ 12일			
	3월	4 ~ 5일	11 ~ 12일			
	4월	22 ~ 23일	29 ~ 30일			
	5월	20 ~ 21일	27 ~ 28일			
	6월	10 ~ 11일	24 ~ 25일			
	7월	1 ~ 2일	15 ~ 16일			
	8월	19 ~ 20일	26 ~ 27일			
	9월	16 ~ 17일	23 ~ 24일			
	10월	7 ~ 8일	14 ~ 15일			
	11월	18 ~ 19일	25 ~ 26일			
	12월	2 ~ 3일	9 ~ 10일			
초등부 여름향심캠프 1박 2일 피정	7월 25일(화) 오후 3시 시작 ~ 26일(수) 오후 3시 마침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여름향심캠프 1박 2일 피정	8월 1일(화) 오후 3시 시작 ~ 2일(수) 오후 3시 마침				중고등부 학생들	
2박 3일 심화피정	1월 13 ~ 15일 3월 10 ~ 12일 6월 9 ~ 11일 9월 22 ~ 24일 10월 13 ~ 15일 11월 24 ~ 26일		금요일 오후3시 시작 ~ 일요일 오후 3시 마침	6주 후속강의가 끝난 분들, 향심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	120,000원	
초등부 여름향심 캠프 2박 3일 피정	7월 28일(금) ~ 30일(일)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여름 향심 캠프 2박 3일 피정	8월 4일(금) ~ 6일(일)			중고등부 학생들		
2018년 1월 청년들을 위한 향심기도 1박 2일 소개피정	6(토) ~ 7일(일) 13(토) ~ 14일(일) 20(토) ~ 21일(일)		토요일 오전 3시 시작 ~ 일요일 오후 3시 마침	향심기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60,000원	

* 소울스테이 참여기관인 평화계곡 피정의집에서는 개인피정, 가족, 소공동체, 본당 제단체를 대상으로 향심기도 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맞춤형 단체피정도 가능합니다.

- 연락처 : 054) 931-0022, 010-9738-0216 // 홈페이지 : peacevalley.or.kr
- 주소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330번지 평화계곡
- 피정 지도 : 조에우제니아 수녀, 이루시아 수녀

❖ 2017년 제주교구 사순 향심기도 특강 ❖

피정	일시		장소	지도	연락처	신청자격
(서귀포시) 중문 성당 (4회)	3월	7일, 14일, 21일, 28일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중문 성당	김경순 수녀	(064)738-6125	향심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제주시) 노형 성당 (8회)	3월	8일 ~ 9일 15일 ~ 16일 22일 ~ 23일 29일 ~ 30일 매주 수,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노형 성당		(064)742-9123	



❖ 월 침묵피정 및 월 모임 · 새신의날 · 전국소기도모임 ❖

피정		일시		장소	지도	연락처	신청자격
월 침묵피정		3월 21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수녀회	(02)744-9825	
		4월 18일(화)					
		5월 16일(화)					
		6월 20일(화)					
		7월 18일(화)					
		9월 19일(화)					
		10월 17일(화)					
		11월 21일(화)					
		12월 19일(화)					
월 새 신 의 날	울산	2월 26일(일)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010-8029-6329 (박경희 마리아)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
		3월 26일(일)					
		4월 30일(일)					
		5월 28일(일)					
		6월 25일(일)					
		7월 30일(일)					
		8월 27일(일)					
		9월 24일(일)					
		10월 29일(일)					
		11월 26일(일)					
		12월 31일(일)					
월 새 신 의 날	광주	1월 02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광주) 중흥동 성당	박석렬 신부	010-6288-0237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
		2월 06일(월)			남재희 신부		
		3월 06일(월)			정규완 신부		
		4월 03일(월)			전 영 신부		
		5월 01일(월)			미정		
		6월 05일(월)			정규완 신부		
		7월 03일(월)			이상훈 신부		
		8월 07일(월)			이청준 신부		
		9월 04일(월)			정규완 신부		
		10월 20일(금) ~ 22일(일)	전국모임 피정	마산가톨릭교육관	한국관상지원단 교수진		
		12월 04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여수 순천 광양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순천 조례동 성당	정규완 신부	010-4855-0190	
	대전	3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미정 (차후에 공지함)	이청준 신부	010-6630-6649	
	청주	2017년 피정 일시는 차후 공지함.		장소 미정 (차후에 공지함)	이청준 신부	010-9408-9670	
	월 모임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 8월 모임은 쉽니다.		(대전) 내동성당 지하 요한방	박봉석 세레자 요한	010-6630-6649	

❖ 월 침묵피정 및 월 모임 · 새신의 날 · 전국 소기도 모임 ❖

지역	장소	일시	봉사자	연락처
서울	송파동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서강대학교젊은이 모임 〈대학(원)생, 청년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	퍼시아저씨	010-2322-3929
	(성북동)씨튼영성센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김안나 홍은경소화데레사	010-8967-1755 010-2792-8005
	새길교회	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최성림 목사	010-3741-0252
		②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③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③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만수 6동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성공회	인천 계양교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성세례요한성당 (대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기	(남양주)마석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 (부천) 성화의 집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강선희 목사	010-8631-7228
	* (고양) 살림 교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5101-4935
대전	내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황경해 아네스	010-6630-6649
	* 월모임: 내동성당 - 지하 요한의 방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박봉석 세례자요한	010-6630-6649
	궁동성당 - 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황경자 데레사	010 6888 0281
	월평동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송진희 미카엘라	010 6489-0600
	도룡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박정욱 소화데레사	010-8804-2160
청주	북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김민지 글라라	043-233-9295
	영운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영욱 루시아	010-5480-8520
	사직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최소자 카타리나	010-6506-8779
	송절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이현수 아가다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10-8844-0633
	청산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네스	043)733-2795
	미원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천경민 아가다	070-9408-9670
부산	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정예규 아네스	010-3878-9638
	남천동 성당_112호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당감 성당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홍경애 골롬바	010-3742-4516
	남산 성당	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유건희 아네스	010-9325-0006
		②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권진숙 빅토리아	010-8508-1691
	민락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정미례 크리스티나	010-9222-8015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왕영수 신부 박경희 마리아	010-5488-1239 010-8029-6329
		* 향심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월 모임〉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대구	황금동 성당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저녁 미사 후	최석환 빈첸시오	010-3526-6611
	본리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정희 글라라	010-7298-0371
	만촌3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미사 후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경주	성동 성당 - 성당 2층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경남	(진주)하대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30분	황혜순 율리안나	010-9667-8944
	(창녕)남지선교성당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선애 카타리나	010-4661-9738
	(창원)사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홍진순 루시아	010-9552-7315
	거제	장승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경화 도미니카	010-7559-1283
		옥포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복순 아네스	010-9689-0072
		장평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주석환 유스티노	010-3193-1896
	거창 성당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신효원 로사	010-5944-3098
광주	중흥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임정자프란치스카	010-9431-7640
			②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송정순 데레사	010-2626-8217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조연숙 리디아	010-9138-2615
			④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윤금 보리나	010-8230-0215
	원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최옥순 세실리아	010-3999-6331
	금호2동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최복희 데레사	010-6690-1097
	비아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안은경 발렌티나	010-9885-8814
	두암동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충현 루치오	011-666-6931
	옥과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강성자 도미니카	010-9883-2309
담양	창평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김현조 힐타	010-6241-1604
순천	조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장호정 마리아 막달레나	010-4855-0190
여수	선원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영 엘리사벳	010-7655-3952
광양	광영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주미 세레나	010-6635-4342
곡성	곡성 성당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유효숙 스텔라	010-6680-2073
전주	솔내 성당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황정애 막달레나	010-9780-6388
제주	광양 성당		① 매월 첫 주, 셋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김은실 소화데레사	010-2002-1023
			② 자체 월피정의 날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미확정,매번 공지함.		
중국	(북경)한인공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문희 벨라데타	번호 미기재함.

2016년도 각 지역별 소식

■ 한국관상지원단 ■

항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8일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공지합니다. 박봉석(세례자요한) 형제가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장을 사임하고, 김병연(요셉) 형제가 사무국장으로 추인되었습니다.

김명순(스콜라스티카) 자매가 마산지역 간사를 사임하고 황혜순(율리아나) 자매가 마산지역 간사로 추인되었습니다. 또한 박봉석(세례자요한) 형제가 대전지역 간사, 최해자(세리피나)자매가 대구지역 간사로 추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관상지원단을 위해서 활동하신 간사님과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임 국장님과 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기도회 중심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소식지가 필요하신 분은 각 지역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봉사자에게 받으시거나, 한국관상지원단 전화(02-421-1968)로 또는 이메일(koreacontout@dreamwiz.com)로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관상지원단 홈페이지(www.centeringprayer.or.kr)자료실에서 소식지를 검색하시면 모든 일정과 한국관상지원단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울 ■

씨튼 영성센터에서는 항심기도 회원들을 위하여 매월 침묵 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20~3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항심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조별 나눔을 통해서 서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항심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승희 수녀님의 알찬 강의와 '하느님 안에서 쉬'를 마무리하는 파견미사로 감사의 시간을 봉헌합니다.

씨튼영성센터 수녀님들의 배려로 항심기도 주간모임(화요일 2~4시)이 구성되어 항심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영적독서,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계신 서울지역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경순 수녀님과 씨튼 수녀님들께서 부천의 역곡 성당과 숙고개 성당(서울교구)에서 대림특강으로 항심기도를 강의해주셔서 기도모임도 새로 구성되었고,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내에 젊은이들을 위한 항심기도가 보급이 되어 기도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서울 모습을 전합니다.

서울지역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려는 분들은 홈페이지(www.hyangsim.com)를 이용하십시오.

■ 인천 ■

인천지역에서 항심기도를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천지역 간사(연락처: 010-4780-7867)에게 문의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면 서로를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서 좋습니다.

■ 대전 ■

2016년 대전지역 쉼의 날 4월 9일, 대철회관에서 하루 피정을 하고 회원 상호 친목도 가졌습니다(강사 : 이청준 신부). 2017년 3월 11일에 쉼 쉼의 날(강사: 이청준 신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장소는 차후 공지함).

■ 청주 ■

2016년 4월 18~19일(1박2일/강사 : 이청준 신부) 청주교구 연수원에서 20명이 피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피정 일정은 차후 공지합니다.

■ 마산 ■

2016년에 마산지역 회원들은 마산가톨릭교육관(관장 : 이청준 신부)에서 행하는 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 부산 · 울산 ■

부산 봉사자는 차순희(비야:010-3572-4308), 울산 봉사자는 박경희(마리아:010-8029-6329)입니다.

지난 4년간을 꾸준히 하루 쉼피정을 통하여 많은 항심기도 회원들의 영적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항심기도와 거룩한 독서를 접목시켜 기도생활과 말씀을 조화시켜 실제 삶으로 열매 맺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항심기도와 거룩한 독서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봉사자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회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연 4회 정도 기도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각 기도회 간사들의 그간의 회생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이 지역에 새로운 항심기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임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 ■

매월 1회 쉼의날(11회)을 실시하여 40명의 회원들이 항심기도, 렉시오 디비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통독, 교육,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교육 1회(김영선 수녀). 이청준 신부 1일 교육 2회(8월, 10월). 항심기도 소개 연수 1회, 후속강의 1회, 열흘피정강의전달을 4일간(1일 2시간) 실시(40명 참석)했습니다.

항심기도를 원하는 분을 위해 수시로 소개강의를 하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여수, 순천 회원들과 합동으로 여수 금호도에서 1일 친교와 단합대회(45명)를 가졌고, 2개 본당에서 기도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사, 부간사, 6개부서의 봉사를 보강하여 새롭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구 ■

현재 대구 지역 회원들은 마산가톨릭 교육관에서 행하는 항심기도 피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꾸준히 피정 받기위해 노력중입니다.
지난 대림 첫 주간에 황금성당에서 소개강의(강사 : 이청준 신부)가 있었습니다.

황금성당 주임 신부님과 만촌3동 주임 신부님께서 향심기도 모임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리동모임은 올리베따노 수녀님들의 렉시오 디비나 지도와 함께 이루어져서 기도가 한층 더 심화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에서는 조 에우제니아 수녀님께서 꾸준히 향심기도 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 향심기도에 관심을 갖는 신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 일정은 홈페이지 peacevalley.

or.kr 로 확인바랍니다.

■ 제주도 ■

2016년에는 4월(1~3일)에 향심기도 소개피정(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강사 이청준 신부)을 가졌고 12월(19~20일)에는 '향심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라는 제목으로 절물 휴양림강당에서 이틀간 피정을 했습니다.

〈2017년 향심기도 2박 3일 피정 계획〉

1. 일시 : 7월 13(목) ~ 15일(토)
2. 강사 : 이청준 신부
3. 장소 :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4. 대상 : 향심기도를 하는 분들은 누구나
5. 문의 : 010-2002-1023

향심 회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2017년 9박 10일 집중피정 상반기 일정(3월 28일 ~ 4월 6일)을 공지합니다. 피정을 하실 분들은 한국관광지원단(전화: 421-1968)으로 신청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금) ~ 22일(일) 2박 3일 전국 모임이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가회비는 별도로 공지함.)

2014년부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신 주소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지원단의 신 주소(우편번호: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8, MODS빌딩 512호 (문정동, 모즈아울렛))를 공지합니다.

| 지역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 | | | |
|------------------|---------------|-------------------|---------------|
| • 사무국장 김병연 요셉 | 010-2948-3852 | • 서울지역 한명숙 카타리나 | 010-8553-2374 |
| • 인천지역 강경애 세실리아 | 010-4780-7867 | • 대전지역 박봉석 세례자 요한 | 010-6630-6649 |
| • 청주지역 연인래 아가다 | 010-9408-9670 | • 마산지역 황혜순 올리아나 | 010-9667-8944 |
| • 부산지역 차순희 비아 | 010-3572-4308 | • 대구지역 최해자 세라피나 | 010-7795-0639 |
| • 광주지역 김영재 알로이시오 | 010-6288-0237 | | |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광지원단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기로 투신하는 개인과 향심기도 그룹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dreamwiz.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는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광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가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